

기의 포괄성

가시적인 인식 - 색, 성, 향, 미, 촉

기의 패러다임으로 인식하는 방식

- 오라나 생체장과 같은 기의 파장.
- 이것은 그 대상의 가시적인 형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상을 띈다.

물질의 외적인 형상은 비슷하더라도 기의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물질의 외적인 형상이 현격하게 다르더라도 기의 느낌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면,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기의 양상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는 반면에 외형이 아주 다른 어떤 나무와 물의 기운이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다.

▶ 목 - 오동나무

▶ 화 - 은행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 토 - 플라타너스, 물푸레나무

▶ 금 - 소나무, 소철

▶ 수 - 감나무

음양오행설의 원리와 실제

- ▶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요소의 성질과 상호관계로서 자연을 설명하는 오행설은 기의 원리
- ▶ 목, 화, 토, 금, 수를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이 띠고 있는 전형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기의 양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 ▶ 1. **목木**이라는 것은 봄에 나무가 움터 나오는 생명의 약진과 같은 기의 양상을 말한다.
- ▶ 2. **화火**라는 것은 여름에 나무의 기운이 잎과 꽃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마치 불처럼 활활 타올라 외부로 뻗어나가는 기의 양상.
- ▶ 3. **금金**이라는 것은 가을에 잎이 지면서 생명의 기운이 추스려지는 것이 흙 속의 쇠와 같은 기의 양상을 띠는 것.
- ▶ 4. **수水**라는 것은 겨울에 모든 생명력이 씨앗으로 저장되는 것이 물과 같이 내부로 응축되는 것과 닮은 기의 양상.
- ▶ 5. **토土**는 흙과 같이 모든 것의 변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의 양상.

▶ 이러한 기의 양상은 자연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적용된다. 장상학설臟象學說은 인체의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 이러한 기운의 양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부를 오행의 원리로 설명한다.

▶ 가령 목木의 기운은 나무뿐만 아니라 흙이나 물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반면 나무에는 목木의 기운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오행의 기운도 종류에 따라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수水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수水의 기운을 보강한다며 물을 가까이 한다거나 잠자리에 물을 떠놓고 있는 행위는(시중에 이런 진단과 처방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 설령 그 진단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화火의 기운이 있는 물을 마시거나 그 물을 떠놓고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오행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기를 입자적 물질관으로 오해하는 데서 나온다.

▶ 오행의 기운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체장에서도 나타난다. 비록 사람이 오장五臟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장기의 상태에 따라서 생체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정서상태나 상념의 내용에 따라서 그 생체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 성격이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내면 지향적인 경우 수水의 기운을 띠고, 정열적이며 성격이 급하고 외부 지향적인 경우 화火의 기운을 띠게 된다. 이는 수水의 기운이 신장 경맥 쪽으로 작용하면서 부교감 신경계의 이완을 돕고 화火의 기운은 심장 경맥 쪽으로 작용하면서 도파민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오행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서상태나 성격, 상념의 내용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기운을 띠 수 있는 것이다.

▶ 음양이론은 자연만물의 두 가지 대립적인 성질과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데 이를 기의 감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음과 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만큼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인식주체인 나의 몸과 마음에서 찾아본다면 음양의 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 음양의 기운은 우리 몸에서 상하, 전후, 좌우의 기운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몸에서 기운이 위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는 양의 체질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는 음의 체질이라고 한다. 더욱이 음식은 사람보다도 음양의 편향을 더 강하게 띈다. 음식이 띈 기운도 결국은 내 몸과 그 음식을 일치시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기운의 양상(내 몸의 위아래, 앞 뒤 등)을 느껴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녹용과 같이 기가 내 몸의 위로 치솟아 오르며 작용하는 것을 양기를 띈다고 하며 보리나 당귀처럼 기가 내 몸 아래로 내려와서 작용하는 것을 음기를 띈다고 한다.

▶ 이처럼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은 가시세계의 물리적 형상을 위주로 인식하는 외부의식만의 내용도 아니고 내면의 주관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부의식만의 산물도 아니다. 음양오행의 개념도 기의 패러다임인 만큼 기존의 인식방식과 달리 안팎의 구분, 주객의 경계가 해체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라는 동질적인 하나의 흐름의 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의 관점에 입각하게 되면 나와 세계를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서 만나게 된다.

- ▶ 기의 양태는 대상의 성질이나 정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 ▶ 식물,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광물,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에서 기는 다양한 양태
- ▶ 그것은 기의 분포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거칠고 부드러운 정도
 - 맑고 탁한 정도
 - 밝고 어두운 정도

▶ 사람의 생체장은 그 사람의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상념 내용이나 기질, 문화, 의식수준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사람의 생체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에는 가장 도움이 되며 기의 양태가 거칠고 탁하고 어두울수록 심신에 걸쳐서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남. 부드럽고 맑으며 밝을수록 기가 울체되지 않고 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폐쇄적이지 않으며 다른 대상과의 상호교류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 이처럼 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시적인 세계에서 파악되는 물리적 형상과는 별개로 온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라는 장으로서 만날 수 있다.

▶ 사람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상념의 종류에서부터 동물, 식물, 광물, 땅의 상태, 어느 시점의 우주 기운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주적 존재를 기라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기는 포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